〔논단〕

시간전례의 음악*

■
박 원 주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 교수·신부〕

여는 말
1. 시간전례의 간추린 역사
  1.1. 동·서방 교회에서의 발전
  1.2. 로마 시간전례의 변천과 새『시간전례서』의 발간
2. 각 시간경의 구조와 이를 위한 음악적 양식
  2.1. 각 시간경의 구조와 특징
  2.2. 시간전례 안의 다양한 음악적 양식
3.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의 의미와 구체적 실행
  3.1. 교회의 가르침
  3.2.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의 실행
맺는 말

여는 말

전례(Liturgia)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로서, 시간전례(Liturgia Horarum)[1]는 하루의 여러 시간, 즉 낮과 밤 전체를 성화시키는 특징과 함께 미사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전례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2] 시간전례라는 형태는 신약성경이 제시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영적 이상에 따라

* 이 글은 201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간의 성화라는 이 기도 본래의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과거에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성무일도'(Divine Office)라는 말 대신에 '시간전례'(Liturgy of the Hours)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단, 본 논문에서는 이 기도의 역사적 변천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한다.

2) 참조: 「시간전례(성무일도)에 관한 총지침」(이하 '「총지침」'이라고 함), 10항.

그리스도교 역사의 거의 초창기 때부터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적 기도로서 형성되어 내용과 형식면에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는데, 동방 교회에서는 비교적 이러한 공동체적이며 민중적인 특성이 잘 보존되었던 반면 중세 라틴교회에서는 일반 신자들이 이 기도로부터 점점 유리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특히 14세기 이후 근대적 신심(Devotio Moderna) 등의 영향으로 이 기도가 마치 개인적 영성 생활을 위한 사적 기도, 혹은 성직자와 수도자에게만 특별히 위임된 의무 기도와 같은 양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오기도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간전례에 관한 이러한 그릇된 인식과 폐단을 불식시키고, 이 기도를 초창기 그리스도교 전통대로 하느님 백성의 보편적인 기도로서 복원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들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일반 신자들이 쉽게 시간전례에 다가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갖가지 어려움들을 제거함과 동시에,[3] '시간의 성화'라는 시간전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 시간경 안에 들어 있는 찬가나 시편 등의 배치를 해당되는 시간경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였다. 또한 「시간전례에 관한 총지침」(이하 「총지침」이라고 함)을 통하여 이 기도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거행하는 기도임을 강조하면서 "시간전례가 온 교회의 행위라는 것은 사제들과 봉사자들에 둘러싸인 주교와 더불어 지역 교회가 시간전례를 거행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고 천명하고, 주교의 부재 시 의전 사제단이나 다른 사제들이 이 기도를 바칠 때에도 각 시간경의 본 시간을 지키고 또 할 수 있는 한 신자들과 함께 바쳐야 하며, 특히 적절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신자들이 축일과 대축일에는 주요 시간경들을 공동으로 바칠 수 있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4]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침은 "시간전례를 노래로 바치는 것은 이 기도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이며, 더욱 큰 장엄성을 나타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더 깊이 일치한다는 것을 표시

3) 참조: A. G. 마르티모, 『시간전례』, 정의철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3, 36쪽.
4) 참조: 「총지침」, 20~23항.

하는 것이므로,[5] 시간전례를 공동으로 거행할 때 가능하다면 노래로 바치도록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사실 시간전례에 있어서 시편, 찬가, 찬미가, 응송 등은 그 서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노래로써가 아니면 그 깊은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6] 원래 그 성격상 노래를 요구하는 부분들을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며 이 기도를 바칠 때, 공동체는 자신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고 나날이 성화되어 천상 교회와의 긴밀한 일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 전례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시간전례를 본래의 정신에 맞는 공동체적 전례 기도로서 활성화하는 데 있어 성음악의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보고, 특별히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의 의미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전례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각 시간경의 구조 및 특징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적 양식들에 대해 알아본 후, 결론 부분에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시간전례의 간추린 역사

예수께서 당신 신도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항구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었다.[7] 이러한 이상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상이 되었고, 특히 3세기 전반기의 교회는 더욱 힘찬 영적 열기를 얻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이가 동감하게 되었다.[8] 마침내 4세기에 들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시간전례는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공동체적 전례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 형태는

5) 참조: 같은 문헌, 268항.
6) 참조: 같은 문헌, 269항.
7) 루카 21,36.
8)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11~12쪽.

크게 주교와 그의 사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교좌식 기도'(또는 '그리스도교 백성의 기도'라고도 함)와 수행자들과 수도자들이 바치는 '수도원성무일도'로 구분되어 발전되었다.[9]

'주교좌식 기도'는 백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기도에서 신자들은 언제나 같은 '아침 시편들'과 '저녁 시편들'을 노래하였고, 청원기도 후 주교나 사제가 본기도를 바치면서 기도를 끝맺었다. 또한 이 두 기도 모임 외에도 밤기도에 신도들이 참석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 기도는 저녁기도 다음에 연이어 바쳐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등불을 켜거나 큰 초를 켜는 예식으로써 저녁기도를 성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수도자들의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기도는 물론 3시경과 6시경, 그리고 9시경을 바치면서 자주 독서 다음에 오는 시편들을 노래하거나 또는 다른 이가 읊는 것을 경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느 특정 축일이나 매 주일에는 밤을 새워 밤기도를 바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잠자기 전에 시편 90편을 읊으면서 끝기도(Completorium)를 바쳤다. 이렇게 교회 안에 '주교좌식 기도'와 '수도원성무일도'라는 두 가지 관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두 기도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실제 그러하였다. 사실 수도회 규칙서들은 주교좌식의 아침과 저녁기도를 받아들였으며, 세속의 교회들도 전형적인 수도회 시편기도를 첨가하거나 여러 기도 시간들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두 형태의 성무일도가 이룬 조화는 동·서방 교회 안에서 성무일도의 전통 유산을 형성하게 되었다.[10]

1.1. 동·서방 교회에서의 발전

1.1.1. 동방 교회

수도 생활이 처음으로 빛을 발한 곳은 이집트였다.[11] 이집트에서

9) 참조: 다니엘 솔니에, 『전례와 그레고리오 성가』, 박원주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70쪽.
10)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24~25쪽.

는 3세기 초에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행한 시간전례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기도들은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그리고 한밤중뿐 아니라, 3시, 6시, 9시에 행해졌다.[12] 곱딕 전통은 수도 생활을 충실히 유지하였고, 대략 75개의 동일한 시편을 매일 읊었는데, 각 시간경의 구조를 보면, 시편을 읊기 전 서곡 부분이 있고 시편을 읽은 다음에는 복음 독서, 하나의 '트로파리오'(Tropario)[13], '성모 찬가' '주님의 기도', 수차례 반복하는 '기리에 엘레이손', 그리고 짧은 '파견기도' 순으로 되어 있다. 동시리아의 칼데아 시간전례에서는 밤기도의 전통이 굳건히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기도는 분명히 옛 주교좌식 밤기도에서 나온 것이며, 주간의 6일 동안 시편집 전체를 다 읽는 관습을 지니고 있었다.[14] 밤기도에 이어서 바치는 아침기도에서는 아침기도 시편과 찬가들을 바치며, 분향 예식과 빛의 예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저녁기도에는 분향 예식과 저녁기도 시편, 그리고 반복되는 환호의 노래가 그 특징을 이루는데, 예전에는 이 노래를 하는 동안 등불을 켰다. 한편 안티오키아 교회의 영향력은 그리스어를 쓰는 지방뿐만 아니라 동시리아에도 미쳤는데, 이는 일상적인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가지고 있는 주교좌식 전례를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의 영적 전통과 조화되게끔 만들었다.[15]

순례지인 예루살렘은 전체 그리스도교 세계를 위한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하였고, 특히 후대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 사바 수도원의 전례는 비잔틴 전례를 따르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위한 모범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비잔틴 전례에서는 주교좌식 전통 가운데 콘스

11) 참조: 같은 책, 104쪽.

12) Cf. Robert Taft, *The Liturgy of the Hours in East and West*,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3, p.14.

13) 청원의 기도 등을 연속적으로 바치는 형태의 기도로서 주례자나 선창자가 먼저 노래나 큰 소리로 청원의 내용을 바치면 회중은 '기리에 엘레이손'과 같은 동일한 문구로 반복하여 응답하는 형식의 기도를 말한다.

14) 시리아 교회에서는 세상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는 수사와 수녀들의 모습이 주님께 끊임없는 찬미가를 울려 드리는 천사들에 비유되었다. Cf. Robert Taft, *op.cit.*, p.16.

15)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108쪽.

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성당의 전통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 수도원식 전통으로는 성 사바 수도원의 팔레스티나 전통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끝으로 서시리아 전례에서 저녁기도는 동시리아 전례와 똑같은 시편들 외에, 찬가들, 향을 피우며 드리는 셋으로 구분된 사제기도를 담고 있으며 축일에는 먼저 시편 하나를 때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읊고 나서 평일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바친 후 복음 독서와 리타니아(Litania)[16]를 바치는데, 대체적으로 시리아 시간전례에서는 찬미가들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시편들은 대단히 적게 사용되고 있다.[17]

전체적으로 동방 교회의 시간전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주교좌식 전통에서나 수도원식 전통에서 모두 늦어도 4세기 후반에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기도로서의 시간전례 관습이 굳건히 확립되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아침기도와 저녁기도가 하루 기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교좌식 전통에서의 시간전례에 있어서는 이 기도들이 주교와 성직자와 모든 신자들이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예식으로 거행되었으며, 이러한 예식들은 각 시간경의 정신에 부합하는 시편과 찬가, 그리고 응송과 후렴 등으로 구성되었고, 때때로 촛불이나 분향예식 그리고 행렬 등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도원식 전통에 있어서의 시편은 각 시간경의 정신과 관계없이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읽어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주교좌식 전통에서와는 다르게 시편을 읽는 동안 후렴이나 응송 등이 사이사이에 첨가되지 않았다.[18]

---

16) 청원의 기도를 연속적으로 하는 기도로서 주례자나 선창자가 먼저 노래나 큰 소리로 청원의 내용을 바치면 회중은 '기리에 엘레이손'과 같은 동일한 문구로 반복하여 응답하는 형식의 기도를 말한다.

17)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113쪽.

18) Cf. Robert Taft, *op.cit.*, pp.54~55.

1.1.2. 서방 교회

7세기까지의 서방 교회의 '주교좌식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고, 수도회 규칙서들에 나타난 시간전례에 관한 언급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서방 교회에서는 수도원식 성무일도와 주교좌식 성무일도의 주기를 하나로 묶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는데, 특히 성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은 동방의 요소들을 빌려 오는 가운데 주교좌식과 수도원식의 여러 전통들을 종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이 수도 규칙 안에서 낮에 드리는, 똑같은 구조의 네 시간경은 다음 요소들, 즉 찬미가, 세 개의 시편, 짧은 독서, 계응, '주님의 기도' '기리에'(Kyrie), 마침기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베네딕토가 '전야기도'(Vigilia)라고 부른 밤기도는 밤이 끝날 무렵에 드리는 기도로서 시편 3편과 94편, 그리고 '암브로시오 찬미가'로 시작하고 12개의 시편을 읊는데, 이 가운데 6개는 구약 독서와 응송을 하기 전에, 나머지는 그 후에 하며, 이어 신약의 한 장을 읽는다. 주일에는 평일에 드리는 밤기도에 주교좌식 밤기도가 덧붙는데, 이 밤기도에는 3개의 찬가, 독서들, '테데움'(Te Deum), 복음, '테데쳍라우스'(Te decet laus)가 들어 있다.[19]

한편 스페인에서는 9세기까지 '주교좌식 성무일도'와 수도자들이 참석하는 성무일도를 구분하였는데 '성 프룩투오소의 규칙서'에서는 이미 낮과 밤의 중간 기도 시간들을 늘렸던 성무일도의 주기를 더 늘려서 열두 번의 기도 시간을 제시하였다. 스페인식 시간경 속의 시편기도에는 왕성한 영적 · 음악적 활동을 통해 얻어진 기도, 잘 발달된 수많은 노래들, 후렴, 응송, '알렐루야 찬가' 등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시간경은 시편 다음에 찬미가를 바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시간전례는 동방 전례들, 프로방스의 수도회들, 켈트 관행들, 그리고 로마 시간전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전통 안에서 저녁기도는 적절한 후렴

19)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117~118쪽.

노래가 특징을 이루는 빛의 예식(Lucernarium)으로 시작되며, 후렴 노래를 부르면서 세례당으로 행진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암브로시오 시간전례의 풍요로움은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저녁기도와 아침기도 때 바치는 여러 개의 기도들이 찬가들과 그날의 정신을 묵상하게 해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20]

1.2. 로마 시간전례의 변천과 새 『시간전례서』의 발간

1.2.1. 로마 시간전례의 변천

6세기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로마 시간전례의 기본적인 골격은 본질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21] 8~9세기 또는 이보다 늦은 시기의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성무일도 구성을 성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에 나오는 성무일도와 비교하면, 베네딕토가 로마 성무일도를 기초로 성무일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로마 성무일도가 이미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채 구성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 내용을 보면 아침기도에는 7개의 시편과 성경 찬가, 독서 '즈카리야의 노래', 리타니아(청원기도)를 드렸고, 저녁기도에는 5개의 시편, 하나의 독서, '성모의 노래', 그리고 리타니아를 드렸다. 또한 시편의 배분에 있어서는 시간경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시편 이외에는 한 주간 안에 시편 전체를 바치는 원칙이 지켜졌다.[22] 한편 카롤링거 왕조가 개입하기 훨씬 이전에 프랑크 지방에 로마 전례가 퍼짐으로써 로마 성무일도가 알프스 북부로 퍼져 나가게 되었고, 이와 함께 베네딕토회 성무일도 역시 널리 보급되면서 점차 다른 수도원식 성무일도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몬테카지노의 수도자인 바오로 부제가 독서집을 만들었고, 후에 후렴들과 응송들, 그리고 새로운 찬가 및 찬미가들이 첨가되면서 시간전례를 위한 더

20) 참조: 같은 책, 123쪽.
21) Cf. Robert Taft, *op.cit.*, p.307.
22)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125쪽.

욱 풍요로운 성가집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23] 하지만 이와 같은 시기에 성인 축일들이 많아지면서 더욱더 시편기도의 흐름을 막게 되었고, 성모 성무일도,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참회 시편들, 성가 시편들 등의 기도들과 성무일도가 로마 성무일도에 덧붙여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세 번의 저녁기도 또는 세 번의 밤기도를 연달아 드리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24]

13세기에 교회는 전례 규정들과 예식서를 통하여 성무일도 관행들을 성문화시킬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라테란으로부터 바티칸으로 자리를 옮긴 로마 교황청은 '성무일도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책은 약간의 내용상의 수정을 거친 후 프란치스코회의 총장 애몬(Aymon)에게 받아들여져 널리 전파되었다. 이 성무일도서는 주일 밤기도의 시편을 24개에서 18개로 줄이는 한편, 여기서 뺀 6개의 시편을 그날 1시경에 배치하였다. 끝기도에는 독서와 참회의식이 선행되었고, 청원기도는 거의 참회기도로 되어 버렸다. 독서집은 신빙성이 거의 없는 성인에 관한 글들로 채워지고, 전례력은 끊임없이 새 성인 축일들로 채워졌다. 그리하여 이미 14세기 이래 성무일도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통그레스(Tongres)의 책임자 라울 드 리보(Raoul de Rivo)는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퍼뜨린 '새로운 것'들을 극복하여 옛 로마 전통의 성무일도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사태를 좀 더 잘 파악하여 성무일도의 단순화, 교부들에게로 돌아감, 그리고 좀 더 나은 역사적 정확성을 요청하면서, 이를 개혁하는 일을 퀴노네스(Quinonez) 추기경에게 맡겼다. 이렇게 해서 1535년에 나온 그의 『성무일도서』(*Breviarium*)는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인위적인 창작, 엄격하고도 무미건조한 예식 진행, 그리고 전통적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시편의 인위적 배열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편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도 개혁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을 마치지 못하고 이 작업을

23) 참조: 같은 책, 126쪽.
24) 참조: 같은 책, 127쪽.

사도좌에 일임하였고, 성 비오 5세는 라틴 교회 공적 기도의 통일성에 역점을 두어 1568년에 『로마 성무일도서』(*Breviarium Romanum*)를 편찬하고 공포하였다. 그 후에 이어진 개혁들도 지나치게 많은 성인들의 축일을 줄임으로써 전례력을 가볍게 만드는 것, 특히 성인전 독서에 나오는 전설적인 내용이나 신용할 수 없는 내용들을 축출하는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런 면에서 1586년에 나온 성 비오 6세의 『성무일도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는 하였지만, 그 후 교황 레오 13세에 이르기까지 전례력은 또 다시 성인들의 축일로 채워지게 되었다.[25]

1.2.2. 20세기의 전례 개혁과 새 『시간전례서』의 발간

마침내 성 비오 10세와 더불어 로마 시간전례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는 1922년 11월 1일에 공표한 자의교서 *Divino Afflatu*를 통해 사람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옛 성무일도를 결정적으로 없앤다고 선언하면서, 그보다는 좀 더 가벼운, 그러면서도 한 주간 안에 시편 전체를 다 읊을 수 있게 한 새 『시간전례서』를 확정하였다. 그는 밤기도(Nocturns)의 전통적인 12개의 시편을 9개로 축소시켰고, 동·서방 교회를 막론하고 아침 찬미 때 시편 148편부터 150편까지 매일 부르던 전통을 그리스도교 역사상 처음으로 해당 요일별로 마련된 찬미 시편 하나씩(토요일부터 차례로 시편 148, 116, 134, 145, 146, 147, 150편이 사용됨)을 부르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26]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에 교황 비오 12세는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창설하고,[27] 다시금 전반적인 전례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그 결과 1955년에 예식서의 간소화에 대한 교령이 나오고, 1960년 성 요한 23세에 의해 『시간전례서』에 관한 규범을 포함하는 예규집(*Codex Rubricarum*)이 나왔다. 아울러 성 요한 23세는 *Rubricarum Instructum*이라는 자의교서를 통해 공의회가 전례에

25) 참조: 같은 책, 130쪽.
26) Cf. Robert Taft, *op.cit.*, p.312.
27)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131쪽.

관한 일반 개혁을 위한 좀 더 깊이 있는 원칙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로부터 3년 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하 「전례 헌장」이라고 함)을 통해 시간전례를 위한 원칙들을 선포하였고, 드디어 교황 바오로 6세는 「찬미의 노래」(*Laudis Canticum*)라는 시간전례에 관한 교황령과 함께 1971년에 「시간전례에 관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과 『시간전례서』(*Liber Liturgia Horarum*)를 내놓으면서 새 『시간전례서』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28]

교황 바오로 6세는 위의 교황령에서 "시간전례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기도이므로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수도자들, 심지어 평신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작성되고 마련되었다"[29]고 강조하면서, 새 『시간전례서』에서는 역사적 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제거되었고 특히 성인들의 전기물은 각 성인의 참된 영적 모상과 그들이 교회 생활에서 행한 역할을 밝혀내고 제시할 수 있도록 다시 꾸며졌다고 밝히고 있다. 확실히 새 『시간전례서』는 시간전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어 주고 신자들이 쉽게 이 기도에 다가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어려움들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경의 수를 줄이고,[30] 한 주간에 완료되었던 시편 주기를 4주간의 주기로 늘려서 배치하였으며,[31] 밤기도(Vigils 또는 Nocturns)라는 말을 '독서기도'(Office of Readings)로 대치하여 하루 중 어떤 시간에나 바칠 수 있는 기도로 조정하였고, 낮기도는 경우에 따라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가운데 제 시각에 더 적합한 하나만을 선택하여 바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32] 또한 새 『시간전례서』는 하루의 성화라는 이 기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각 시간경이 그 기도를 바치도록 정해진 본 시간에 근접하여 바쳐질 때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

28) 참조: 같은 책, 132쪽.
29) 「시간전례에 관한 교황령」, 1항.
30) 참조: 「전례 헌장」, 89항.
31) 참조: 「시간전례에 관한 교황령」, 4항.
32) Cf. Robert Taft, *op.cit.*, pp.313~314; 참조: 「전례 헌장」, 89항.

으며,[33] 이러한 시간경들 가운데, 특별히 아침기도와 저녁기도가 매일의 시간전례에 있어서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주요 시간경으로서, 공적으로 또한 공동으로 더욱 성대하게 바쳐질 수 있도록 꾸며졌다.[34]

2. 각 시간경의 구조와 이를 위한 음악적 양식

새『시간전례서』에서는 현대 인간 생활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적 시간경을 하루의 자연 시간에 더 쉽게 상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정신 속에서 아침기도 시간과 중복될 수 있는 1시경(Prima)을 폐지하였다.[35] 또한 독서기도는 밤에 바치는 이들을 위하여 밤기도로서의 특색을 간직하면서도 하루 중 어느 시간에건 바칠 수 있는 기도로, 그리고 낮기도는 경우에 따라 3시경(Tertia), 6시경(Sexta), 9시경(Nona) 가운데 하나만 바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 시간경을 모두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간경들의 구조 안에서 특별히 음악적으로 더 큰 비중을 갖는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수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적 양식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시간경의 구조와 특징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각 시간경의 구조와 특징

하루의 시간전례는 관례상 초대송으로 시작된다. 이 초대송은 "주여, 내 입시울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후렴과 함께 시편이 이어지는데, 초대송을 아침기도 전에 바칠 때에는 편의상 초대송 시편을 후렴과 함께 생략할 수 있다.

---

33)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30쪽.
34) 참조:「시간전례에 관한 교황령」, 2항; 참조:「총지침」, 269항.
35)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153쪽.

2.1.1. 아침기도(Laudes)와 저녁기도(Vesperas)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는 시간전례 전체의 중심으로서 매일의 시간전례에 있어서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36] 구조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 두 기도는 다른 시간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라는 도입 구절로 시작되며 그 다음에 영광송과 “알렐루야”(사순 시기에는 생략)가 뒤따르는데, 다만 위에서 말한 초대송으로 아침기도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 도입부를 생략한다. 곧이어 각 시간경과 해당 축일의 특색에 맞추어 마련된 찬미가를 바치며, 이 찬미가는 특히 교우들과 함께 바칠 때에 더 쉽고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37] 찬미가 다음에는 시편기도를 바치는데, 아침기도의 시편기도는 한 개의 아침 시편과 구약에서 취한 한 개의 찬가 그리고 또 한 개의 찬미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녁기도의 시편기도는 이 시간경에 잘 맞고 또 교우들과 함께 바치는 경우에 잘 어울리는 두 개의 시편이나 두 부분으로 나뉜 한 개의 긴 시편 그리고 사도들의 서간이나 묵시록에서 취한 한 개의 찬가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기도가 끝난 다음에 전례일, 전례 시기 또는 축일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된 성경소구를 듣거나 경우에 따라 긴 독서를 들을 수 있다. 시간전례를 교우들과 함께 바칠 때에, 필요하다면 성경 독서를 해설하는 간단한 강론이 덧붙을 수도 있으며, 독서나 강론 후에는 잠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응송을 바치거나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마련된 응송과 같은 성격을 지닌 성가를 부를 수 있다. 다음에 복음의 찬가(Gospel Canticle), 즉 아침기도에서 즈카리야의 노래, 저녁기도에서는 성모의 노래를 전례일과 전례 시기의 축일의 성격에 따라 제시된 후렴과 함께 장엄하게 바친다. 복음의 찬가가 끝난 다음에는 청원기도를 바치며 곧바로 주님의 기도가 이어진다. 주님의 기도 후에는 마침기도를 바치

36) 참조: 「총지침」, 37항.
37) 참조: 같은 문헌, 42항.

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말과 더불어 미사 때와 같은 축복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권고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응답과 함께 기도를 마무리한다.

2.1.2. 독서기도(Officium Lectionis)

성경 독서는 “항상 기도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38]는 기본 정신에 따라 독서기도는 시편, 찬미가, 마침기도와 같은 양식으로 구성되어, 참된 기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기도는 하루 중 어느 때나 바칠 수 있지만, 특별히 아침기도 전에 독서기도를 바칠 경우에는 초대송으로 시작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반적인 도입 양식(“하느님, 날 구하소서”)으로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찬미가를 바치는데, 연중 시기가 아닐 때에는 고유의 찬미가를 바치고, 연중 시기에는 기도를 바치는 시간에 따라 밤에 드리는 찬미가 또는 낮에 드리는 찬미가를 취한다.[39] 찬미가 후에는 다른 시간경에서와 같이 시편기도가 뒤따르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요일에 따라 시편집에 마련된 시편과 후렴을 바친다. 시편기도를 마치고 독서로 넘어가기 전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로 마음을 옮겨가기 위해 계응시구(Versicle)를 바친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독서가 시작되는데 제1독서는 성경 독서이고, 제2독서는 교부들이나 교회 저술가들의 저서에서 취한 것이나 또는 전기물을 읽는다. 독서 다음에는 각각 응송이 뒤따르고, 사순 시기가 아닌 주일과 부활 및 성탄 팔일 축제 그리고 대축일과 축일에는 두 번째 응송 다음에 사은 찬미가 ‘떼데움’을 바친다. 독서기도는 관례적으로 그날의 마침기도를 바친 다음 적어도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환호로 끝마친다.[40]

---

38) 같은 문헌, 56항.
39) 참조: 같은 문헌, 61항.
40) 참조: 같은 문헌, 69항.

2.1.3. 낮기도

「총지침」에서는 낮기도에 속하는 세 가지 시간경 모두를 바치는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현재 기도자가 기도를 바치는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경을 하나만 선택하여 바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중에도 기도하는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41] 이 세 시간경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기도들처럼 일반적인 도입 양식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찬미가, 3개의 시편 또는 1개의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친다. 그러고 나서 성경소구, 계응시구, 마침기도가 뒤따르며, 적어도 공동으로 이 시간경을 바칠 경우에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환호로 끝맺는다. 만일 하루에 두 개나 세 개의 낮기도 시간경을 바치는 경우에는 한 시간경에서는 시편집에 나오는 시편기도를 하고 다른 시간경에서는 보충 시편기도를 바치며, 찬미가와 성경소구 등은 해당되는 시간경에서 각각 취한다.

2.1.4. 끝기도(Completorium)

끝기도는 자정이 지난 후라도 밤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바치는 하루의 마지막 기도로서 다른 시간경들과 같은 도입 구절로 시작된다. 이어서 침묵 속에 또는 미사 경본에 나오는 참회 양식에 따라 양심성찰을 하고 해당되는 찬미가를 바친다.[42] 시편기도에서는 요일에 따라 정해진 시편을 바치는데, 끝기도를 외워서 바치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시편 대신에 주일 시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편기도 후 성경소구와 응송 및 끝기도의 정점인 시므온의 노래가 뒤따르며 그 후에는 마침기도를 바친다. 마침기도 후에는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는 경문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청한 다음, 성모찬송가 중에 하나를 부르면서 기도를 마친다.

---

41) 참조: 같은 문헌, 76~77항; A. G. 마르티모, 앞의 책, 153쪽.
42) 참조: A. G. 마르티모, 앞의 책, 155쪽.

2.2. 시간전례 안의 다양한 음악적 양식

시간전례는 기본적으로 노래로 바칠 때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각 시간경들의 여러 부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음악적 양식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그 서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노래로써가 아니면 그 깊은 의미를 표현할 수 없는 시편, 찬가, 찬미가, 응송 등이 음악적으로 더욱 큰 비중을 갖는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1. 찬미가(Hymn)

시간전례 안에서 찬미가는 미사의 입당송 같이 하나의 색조(色調)를 제시함으로써 해당되는 전례 시기나 그날 기념되는 신비 속으로 신자들을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43] 찬미가는 보통 동일한 구조를 지닌 여러 개의 절(Stanza)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절은 다시 같은 운율이나 리듬형을 갖는 몇 개의 행(Line)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찬미가를 위해서는 하나의 곡조를 가지고 매 절 가사를 똑같이 반복하여 부르는 유절 형식(Strophic)의 노래가 가장 적합한 음악적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레고리오 성가로 된 찬미가집(Liber Hymnarius) 안에는 전례 시기와 축일에 따라 마련된 다양한 유절 형식의 찬미가들이 있는데, 이 노래들 가운데 각 절이 a-b-c-a나 a-a-b-c, 혹은 a-a-b-a 등의 4행 구조로 이루어진 것들이 가장 많다.[44]

43) 참조: 다니엘 솔니에, 앞의 책, 130쪽.
44) Cf. Willi Apel, *Gregorian chant*,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426.



a-b-c-a 구조로 이루어진 성탄 시기 저녁기도 찬미가

한편, 「총지침」에서는 시간전례를 자국어로 바치는 경우에 주교회의는 라틴어 찬미가를 자국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또 새로 만든 찬미가를 도입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경우 새 찬미가들이 같은 리듬이나 박자를 가진 전통적인 곡조로써 불려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간전례 안에서 찬미가가 차지하는 역할과 본질적 성격을 감안하여, 예술적 가치가 없거나 전례의 품위에 어긋나는 대중적인 노래를 도입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45]

45) 참조: 「총지침」, 177~178항.

2.2.2. 시편(Psalm)

시간전례 안에서 시편은 양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편은 노래할 때건 외울 때건, 전통과 관례로 인정된 여러 방법에 따라, 한 시편을 계속하여 내리 바칠 수 있고(In Directum), 또는 기도에 참석하는 공동체를 두 편으로 나누어 한 구절이나 한 단락마다 교대로 바칠 수 있으며(Antiphonally), 또는 시편의 한 단락마다 후렴을 반복해 가며 바칠 수 있다(Responsorially).[46] 그리고 매 시편 앞에는 해당되는 후렴을 바치고, 모든 시편은 영광송으로 끝맺으며, 필요하다면 그 후에 후렴을 반복한다. 한편 "시편의 문학 유형이 이를 허락할 때, 시편을 한 단락씩으로 나누어, 특히 시편을 자국어로 노래하는 경우에는 단락마다 후렴을 반복할 수 있다. 이럴 때에 영광송은 시편 끝에 한 번만 붙이면 된다."[47]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선법에 바탕을 둔 아름다운 시편 창법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창법은 위에서 열거한 시편기도를 바치는 세 가지 방식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창법에서는 먼저 시편의 한 구절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에 배치하는데, 두 부분 사이에는 중간 휴지부를 두어 잠시 침묵한다. 전반부는 다시 도입부(Intonatio)와 전반 낭송부, 그리고 중간 종지부(Mediatio)로 구성되고, 후반부는 후반 낭송부와 종결부(Terminatio)로 구성되며, 전반 낭송부가 조금 길 때, 짧은 휴지부(Flexa)[48]가 삽입되기도 한다.[49] 한편 주어진 시편을 노래하기 위한 시편창 음률(Tonus)의 선택에 있어서는, 어떠한 음률이 해당되는 후렴(Antiphon)과 음악적으로 가장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50]

---

46) Cf. G. D. Gill, *Music in Catholic Liturgy*, Chicago: Hillenbrand books, 2009.
47) 「총지침」, 125항.
48) 짧은 휴지부에서는 보통 낭송음에서 장 2도 혹은 단 3도 내리며 짧은 숨을 쉰다.
49) 참조: 박원주, 「화답송은 노래다」, 『사목연구』 28(2011/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158쪽.



교회선법 제2선법에 의한 시편창의 예

마지막으로 보다 더 운율적인 시편의 경우, 시간전례 안에서 이러한 시편들을 찬미가(Hymn)와 같은 성가 형식으로 노래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교회의 오랜 관습을 존중하여 전통적인 시편 창법에서 영감을 얻은 고유한 양식들을 계발하여 시편의 노래로 부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51]

2.2.3. 찬가(Canticle)

새『시간전례서』안에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에 성경에서 발췌한 찬가가 하나씩 들어 있는데, 아침기도의 경우에는 한 시편과 다른 시편 사이에 구약성경에서 뽑은 찬가가 하나 삽입되어 있고, 저녁기도에서는 두 개의 시편 후 신약의 사도서간이나 묵시록에서 취한 한 개의 찬가가 들어 있다. 일반적으로 찬가를 노래하는 양식은 음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편을 노래하는 양식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 '복음의 찬가들'이라고 일컫는 '즈가리야의 노래' '성모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의 경우는 시편을 노래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조금 달리 찬가의 맨 첫 구절뿐만 아니라 매 절마다 도입부를 넣어서 노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복음의 찬가'들 가운데서 특히 저녁기도 때 바치는 성모의 노래(Magnificat)는 보다 더 성대한 양식으로 바쳐지기도 하는데, 노래의 각 절을 단성부 성가와 다성부 음악으로 번갈아 가며 부르기도 하고, 악기의 반

50) 수도자들이 바치는『시간전례서』의 경우 각 후렴 악보에는 시편 창법을 지시하는 선법 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이는 그 후렴을 노래한 다음 해당 선법의 음률로 시편을 노래하라는 표시가 된다.

51) Cf. G. D. Gill, *op.cit.*, p.110.

주에 맞추어 성가대가 장엄하게 노래하기도 한다.

2.2.4. 응송(Responsory)과 계응시구(Versicle)

아침기도, 저녁기도, 끝기도의 짧은 응송과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의 계응시구는 방금 전에 들은 성경소구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의 환호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 준다. 짧은 응송을 위한 음악적 양식으로는 전통적으로 '답창 형식'(Forma Responsorialis)이 사용되는데, 이 형식의 구조는 보통 R-R-V-R'-D(영광송의 전반부)-R로 이루어져 있다.[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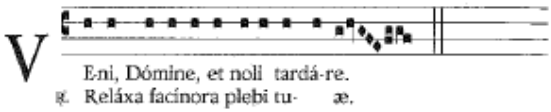


답창 형식으로 된 짧은 응송의 예

한편 계응시구를 위한 전통적인 음악적 양식은 후렴 없는 시편창(혹은 직접적 시편창)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흔히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멜리스마가 붙는다.

---

52) 이 형식에서는 선창자가 먼저 후렴(R)을 노래하면 회중이 똑같이 반복하고 나서, 선창자가 시구를 노래할 때 회중이 후렴의 후반부(R')만을 노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나서 선창자가 영광송의 앞부분을 부르면 회중은 후렴 전체를 노래한다. Cf. Willi Apel, *op.cit.*, p.185.



계응시구의 예

2.2.5. 성모찬송가(Marian Antiphon)와 떼데움(Te Deum)

성모찬송가는 시간전례의 끝기도를 마치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전례력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노래가 사용된다[53]: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Alma Redemtoris Mater), '하늘의 영원한 여왕'(Ave Regina Caelorum), '천상의 모후여'(Regina Caeli), '여왕이시며'(Salve Regina). 이 성모찬송가들은 각각 단순 양식과 장엄 양식으로 된 노래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단순 양식으로 된 'Salve Regina'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떼데움은 사순 시기를 제외한 주일과 대축일 및 축일 독서기도에서 두 번째 응송이 끝난 다음에 바치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로서 '사은찬미가'라고도 부른다. 이 노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부분은 성찬기도문과 매우 유사하며 삼위일체적인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째 부분은 구세주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전통적인 떼데움의 악보는 그 기원이 성 암브로시오나 성 아우구스티노에게서 유래한다는 설이 오랫동안 주장될 만큼 고대성이 인정되는데, 실은 가사와 음악의 분석을 통해 이 곡이 계속적인 첨가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한 혼합적인 작품임을 알 수 있다.[54] 떼데움의 노래도 저녁기도 때의 '성모의 노래'처럼 경우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바쳐지기도 하며, 때로는 악기를 동반한 보다 웅장한 합창음악의 형태

53)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는 대림 시기부터 주님봉헌축일까지, '하늘의 영원한 여왕'은 주님봉헌축일부터 성주간까지, '천상의 모후여'는 부활 시기 때, '여왕이시며'는 삼위일체대축일부터 연중 시기 끝까지 부른다.

54) 참조: 다니엘 솔니에, 앞의 책, 125쪽.

로 불려지기도 한다.

3.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의 의미와 구체적 실행

3.1. 교회의 가르침

「총지침」에서는 시간전례를 공동으로 바치든 개인으로 바치든 그 본질적 전례 체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시간전례를 공동으로 바칠 때 그 교회적 성격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히면서 공동체적으로 거행하는 전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침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시간전례를 바칠 때, 할 수만 있다면 시간전례 각 부분의 성격과 참여자의 직능을 존중하면서 노래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천명하고 있다.[55] 확실히 시간전례를 노래로 바치는 것은 이 기도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이며, 더욱 큰 장엄성을 나타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더 깊이 일치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노래로 시간전례를 바치는 일을 기도에 대한 어떤 외적 장식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교 예배의 공동체적 특성을 충만히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56] 한편 성음악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후속 문헌인 「성음악 훈령」에서도 시간전례의 의무가 성직자와 복음 삼덕을 서원한 수도자들에게 특별히 부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공식 기도에 좀 더 깊이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려면 주요 시간경들을 되도록 노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고, 신자들도 마땅히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에 초대되어 점차 교회의 공식 기도를 이용하고 존중하고 맛볼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57] 따라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물론 평신도들까

55) 참조: 「총지침」, 33항.
56) 참조: 「한국천주교성음악지침」, 70항.
57) 참조: 「성음악 훈령」, 39~40항; 「총지침」, 68항.

지도 특히 주일과 축일에는 영적 기쁨으로 시간경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훈련시켜야 하며, 더욱이 시간전례 전체의 중심이 되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는 노래를 통해 공동체가 보다 성대하게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58] 「총지침」에서는 이렇게 노래로 시간전례를 거행할 때 일차적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 부분의 선택은 전례의 각 부분 및 성가가 지니는 의미와 성격을 존중하여 전례 거행의 올바른 순서를 따라야 하며, 그중에는 먼저 환호, 사제 및 집전자들의 인사에 대한 응답, 화답식의 청원기도 응답, 후렴과 시편, 반복되는 삽입 구절 또는 응송 그리고 찬미가와 찬가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2.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의 실행

「전례 헌장」에서는 전례 성가에 대한 공의회의 선언이 모든 전례 행위, 특히 시간전례에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다.[59] 따라서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의 실행에 있어서도 전례 성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특히 노래로 하는 미사(Missa in Cantu)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리들이 기본 바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3.2.1. 성음악 봉사자의 역할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에 있어서도 노래로 하는 미사에서처럼 성음악 봉사자들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요청된다. 단, 시간전례는 일반적으로 미사에 비해 소규모로 거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의 성가대나 지휘자보다 공동체의 노래를 선도하고 교창식의 노래(Antiphony)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선창자들이나 선창 그룹(Schola) 형태의 실행이 보다 큰 효과를 자아낼 수도 있다. 확실히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에 있어서 선창자들은 주례자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자들의 노래를 지도하고 예식 중에 공

58) 참조: 「총지침」, 272항.
59) 참조: 「전례 헌장」, 113항.

동체의 노래를 이끌어 감으로써 더욱 장엄한 전례 거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선창자는 보통 찬미가, 후렴, 시편 및 찬가 등의 제일 첫 구절을 노래하면서 회중을 인도하는데, 회중 전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창식으로 노래할 경우에는 그룹별로 각각의 선창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노래를 돕고 회중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르간과 같은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처럼 악기의 도움을 받아 공동체는 보다 용이하게 시간전례의 노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식은 더욱 성대하게 거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악기 소리가 너무 커서 회중의 노랫소리를 압도하거나 가사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60] 따라서 악기 연주자는 예식을 더욱 장엄하게 하고 참여자들에게 거룩한 전례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간전례에 맞는 연주법을 익혀야 하며, 때때로 시간전례의 도입 전이나 마침 후에 이 전례의 분위기에 적합한 독주 형태의 연주를 통해 예식의 품위를 더욱 들어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울러 연구하여야 한다.

3.2.2. 구체적 실행

「총지침」에서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가 시간전례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특별히 이 두 기도를 노래로 하여 다른 시간경들보다 더 성대하게 바치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만을 중심으로 시간전례를 노래로 실행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3.2.2.1. 시간전례의 도입과 찬미가

하루의 시간전례는 관례상 초대송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아침기도 전에 독서기도를 미리 바치지 않았다면 주례자가 “주여, 내 입

60) 참조: 「성음악 훈령」, 64항.

시울을 열어 주소서"를 장엄하게 노래하고 나머지 회중은 "내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라고 응답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전례력에 따라 주어진 초대송 후렴과 시편을 바치는데,[61] 「총지침」에는 초대송을 아침기도 전에 바칠 때에는 편의상 초대송 시편을 후렴과 함께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62] 한편 저녁기도는 "하느님, 날 구하소서"를 주례자가 장엄하게 노래하며 시작하고 회중은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라고 응답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영광송과 "알렐루야"(사순 시기에는 생략)가 이어진다.

초대송 또는 시간전례의 도입 부분이 끝나면 유절 형식으로 이루어진 찬미가를 노래하는데, 이때 선창자가 찬미가 1절의 첫 번째 행을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하며 회중을 이끈다. 보통 찬미가의 노래는 보다 분명한 리듬 혹은 박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음악적 흐름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두 편으로 나누어 바칠 때에는 절과 절 사이에 지나친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찬미가의 마지막 절에는 '영광의 찬가'(Doxologia)가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칠 때에는 모든 이가 깊은 절을 하며 함께 노래한다. 찬미가는 경우에 따라 기존에 있는 곡조에 새로운 찬미가 가사를 대입시켜 부를 수도 있고, 새로운 곡조를 만들어 다양한 양식으로 부를 수도 있으나 찬미가가 담고 있는 고유의 성격상 시편창과 같은 형식으로 노래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말할 수 있다.

3.2.2.2. 후렴의 노래와 시편 및 찬가

시간전례에서 바치는 모든 시편과 찬가에는 해당되는 후렴이 동반된다. 사실 이러한 후렴은 시편이나 찬가를 인격적 기도로 변모시키며, 시편 낭송을 더욱 다양하고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63] 통상적으로 이 후렴은 시편이나 찬가의 전후에 한 번씩만

61) 초대송 때 주로 바치는 시편은 시편 94편이며, 때때로 시편 99편 또는 시편 23편이 사용되기도 한다.
62) 참조: 「총지침」, 35항.
63) 참조: 같은 문헌, 113항.

부른다. 후렴을 위한 노래는『시간전례서』의 후렴집[64]에서 취할 수도 있고, 주어진 가사를 직영창법(Tonum Rectum)[65]으로 노래할 수도 있으며, 기존 성가집에서 다른 후렴을 선택하여 노래할 수도 있다.[66] 그중 어떠한 경우이든 선창자는 먼저 노래의 제일 첫 부분(혹은 첫 구절)을 부르며 회중을 인도하는 것이 좋다.

시편이나 찬가는 본래의 성격상 회중을 두 편으로 나누어 교창식으로 노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교회선법에 의한 전통적인 시편창법으로 노래할 수도 있고, 이를 준용한 다른 창법으로 부를 수도 있으며, 해당되는 시편 혹은 찬가의 노래를 새로이 작곡하여 적절한 승인을 거친 다음 사용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시편창법으로 노래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짧은 휴지부(Flexa)에서 너무 긴 숨을 쉬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중간 휴지부에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절과 절 사이에 너무 긴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3. 응송과 '복음의 찬가'

시편 및 찬가가 끝나고 나면 성경소구가 뒤따르는데, 독서는 긴 독서건 짧은 독서건 간에 그 성격상 노래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다.[67] 반대로 성경소구 후에 나오는 응송은 그 성격상 교우들과 함께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는데,[68] 노래하는 방법은 본 논문 2.2.4.항에서 언급한 전통적 답창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마련된 응송과 같은 성격을 지닌 다른 성가를 부를 수도 있다.

이어서 '복음의 찬가', 즉 아침기도에서 '즈가리야의 노래', 저녁

64) 한국천주교회에서는 1982년 왜관의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발간한『안티포날레』라는 책을 예로 들 수 있다.
65) 도입부나 종결부가 따로 없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음으로 주어진 가사를 노래하는 방식이다.
66) 참조:「총지침」, 274항.
67) 참조: 같은 문헌, 283항.
68) 참조: 같은 문헌, 281항.

기도에서는 '성모의 노래'를 후렴과 함께 장엄하게 바치는데, 「총지침」에서는 "오랜 세기에 걸쳐 로마 교회에서 즐겨 불러 온 이 두 가지 노래는 우리의 구속에 대한 찬미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노래들을 전통적인 시편창법에 맞추어 부를 때에는 시편을 노래할 때와는 달리 찬가의 각 절마다 해당되는 도입부(Intonatio)를 삽입시켜야 한다.

3.2.2.4. 청원기도와 주님의 기도

'복음의 찬가'가 끝난 다음 아침기도에서는 그날과 일을 주님께 봉헌하는 청원기도를 바치고, 저녁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하여 청하는 청원기도를 바치는데, 기도를 바치는 외적 양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청원기도에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청원기도는 주례자의 짧은 초대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어지는 지향의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례자나 주송자 혹은 선창자가 각각 두 부분으로 구성된 매 지향을 바친 다음 공동체가 『시간전례서』에 제시된 응답 문구나 "기리에 엘레이손" 등과 같은 동일한 기도문을 직영창법 등의 방법으로 반복하면서 바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주례자나 주송자 혹은 선창자가 지향의 첫째 부분을 말하면 공동체가 둘째 부분으로 응답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기도가 곧바로 이어지는데, 「총지침」에서는 기도의 품위를 위하여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에서 청원기도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하루에 세 번, 즉 미사 때, 아침기도 때 그리고 저녁기도 때 주님의 기도를 장엄하게 바치라고 강조하고 있다.[69] 따라서 이때 부르는 주님의 노래는 미사 때와 같은 곡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시간전례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장엄한 양식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

69) 참조: 같은 문헌, 195항.

3.2.2.5. 마침기도와 강복 및 파견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는 주례자의 마침기도와 강복 및 파견으로 끝나는데, 「총지침」에서는 주례자가 특히 마침기도와 같은 부분들을 노래로 함으로써 기도를 더욱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주례자가 바치는 기도문의 음률은 미사 때의 본기도 음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에서는 기도 전의 "기도합시다"라는 부분을 생략한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라는 대화를 노래로써 나누고, 주례자는 미사 때와 같은 방법으로 성대하게 강복하고 나서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말로 공동체를 파견한다. 이 파견을 위한 음률과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백성의 응답 또한 '노래로 하는 미사'(Missa in Cantu)에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 사제와 부제가 없을 경우에 공동체는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한다.

맺는 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헌장」은 시간전례가 하느님을 공적으로 찬미하는 교회, 곧 온 신비체의 목소리이므로 이 기도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바쳐져야 하는 기도임을 특히 강조한다.[70] 더 나아가 「총지침」을 통하여 시간전례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생활 전체의 중심이요 정점인 미사성제의 신비에서 나오는 은혜를 하루의 여러 시간에까지 두루 퍼지게 하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또는 통교를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느님께 대한 예배를 성취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직자와 수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자주 이 공동 기도에 참여하여 전례

70) 참조: 「전례 헌장」, 99항.

행위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71] 이 지침은 이러한 공동체적 전례 기도에 있어서 마음과 목소리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더 깊이 일치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고 장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 기도를 노래로 바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시간전례를 모두 노래로 바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때에는 실천상의 이유 때문에 성대함의 "단계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성대함의 "단계적" 원칙이란 시간전례를 완전히 노래로 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단순히 읽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사이에 여러 중간 단계를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경에 있어 대화나 환호, 찬미가, 시편 및 찬가, 응송 등과 같이 그 특성으로 보아 직접 노래해야 할 부분들만을 우선적으로 노래로 한다든지, 하루 시간전례의 중심인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다른 시간경들과 차별을 두어 보다 더 성대하게 노래로 바치고, 특히 축일과 대축일에는 이 두 기도를 공동체가 더욱 장엄한 양식으로 완전히 노래로 바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원칙을 적용하면 시간전례의 여러 요소들을 무차별적으로 균등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기도의 각 부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참된 기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며, 이처럼 풍부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교회의 공적 찬미는 이전보다 더 자주 노래로 바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72] 하지만 이러한 단계를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선 각 공동체의 특성이나 숫자 및 구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당의 사목자들이나 수도회의 장상들은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의 의미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적인 전례 기도의 중요성을 꾸

71) 참조: 「총지침」, 27항.
72) 참조: 같은 문헌, 273항.

준히 강조하고 시간전례를 노래로 바치는 방법을 교육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자주 시간전례를 직접 주례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교구나 주교회의 차원에서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교구 차원에서는 시간전례의 음악을 이끌 수 있는 선창자나 오르가니스트와 같은 성음악 봉사자들을 꾸준히 육성해야 하며, 특히 주일이나 축일 등에 교구장이 여러 사제들이나 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전례를 직접 주례함으로써 공동체가 성대한 시간전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교회의에서는 전례위원회나 성음악위원회를 통하여 우리의 고유한 정서에 부합하고 우리말 어법에 맞는 아름다운 찬미가, 시편창, 응송, 찬가 등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공적 기도 가운데 하나인 시간전례를 한마음이 되어 가꾸어 나갈 때, 시간전례는 “자신의 참된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는 신부의 목소리”요, “당신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로서 우리를 성인들과 천사들이 부르는 영원한 천상 찬미의 노래에 결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세상 안에서 모든 이를 성화시키고 세상을 정화하는 힘찬 구원의 선포로 꾸준히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교회 문헌

「시간전례(성무일도)에 관한 교황령」(*Laudis Canticum*), 교황 바오로 6세, 1970.
「시간전례(성무일도)에 관한 총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개정판), 1990.
「성음악 훈령」(*Musicam Sacram*), 교황청예부성성, 196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개정판).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9.

2. 단행본

마르티모, A. J.,『시간전례』, 정의철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3.
솔니에, 다니엘,『전례와 그레고리오 성가』, 박원주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Apel, Willi, *Gregorian chant*,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Gill, G. D., *Music in Catholic Liturgy*, Chicago: Hillenbrand books, 2009.
Taft, Robert, *The Liturgy of the Hours in East and West*,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3.

3. 논문

박원주,「화답송은 노래다」,『사목연구』28(2011/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국문초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헌장」은 시간전례가 하느님을 공적으로 찬미하는 교회, 곧 온 신비체의 목소리이므로 이 기도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바쳐져야 하는 기도임을 특히 강조한다. 더 나아가 「총지침」을 통하여 시간전례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생활 전체의 중심이요 정점인 미사성제의 신비에서 나오는 은혜를 하루의 여러 시간에까지 두루 퍼지게 하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또는 통교를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느님께 대한 예배를 성취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직자와 수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자주 이 공동 기도에 참여하여 전례 행위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공동체적 전례 기도에 있어서 마음과 목소리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더 깊이 일치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고 장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 기도를 노래로 바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사실 시간전례에 있어서 시편, 찬가, 찬미가, 응송 등은 그 서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노래로써가 아니면 그 깊은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성격상 노래를 요구하는 부분들을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며 이 기도를 바칠 때, 공동체는 자신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고 나날이 성화되어 천상 교회와의 긴밀한 일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 전례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시간전례를 본래의 정신에 맞는 공동체적 전례 기도로서 활성화하는 데 있어 성음악의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보고, 특히 노래로 바치는 시간전례의 의미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전례의 역사를 간략하

게 살펴보고, 각 시간경의 구조 및 특징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적 양식들에 대해 알아본 후, 결론 부분에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 주제어: 시간전례, 성무일도, 찬미가, 시편창법, 응송.